

2005 위생강습회 개최 대한설비공학회 위생부문위원회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석현) 위생부문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지난 10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과충회관에서 2005 위생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습회 내용은 △ 급배수설비 설계자료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 급배수설비 기술정립의 배경((김영호 C&T Cooperation 대표) △ 동시사용 유량 계산법(이용화 유한대학 교수) △ 건물의 용도별 위생기구 설치수량(이용화 유한대학 교수) △ 기계설비공사의 문제점 및 대책(김윤중 한신공영 기전부 설비부장) △ WSFU, DFU 기준의 급배수량 계산 및 환경 선정(김동민 신원이엔지 대표) △ 우수이용 신기술(변운섭 우원M&E 소장) △ 화장실의 악취제거 및 절수기구 소개(서기원 대림대학 교수) 등 급·배수 설비의 핵심 내용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실습을 겸해 실무자들이 위생설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무에 적용되는 위생설비의 각종 데이터, 부하계산 방법 등은 NPC를 기준하는 것이나 HASS 2006이 제정된 이후 우리 분야에서는 두 가지 코드가 혼용됨으로 인하여 용어의 혼동은 물론 데이터 적용 및 부하계산 방식 등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강습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차 실무자들이 올바른 부하계산 요령 등을 습득하여 적정설계에 의한 적정 관경과 장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과 함께 위생설비 분야의 기술기준 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 가스안전결의대회 개최



APEC 성공개최를 위한 2005 가스안전결의대회가 지난 10월 18일 부산 사직سال내체육관에서 열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한 이 대회는 부산지역 가스관련업무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하여 가스안전과 관련한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체력을 단련하였으며, 어울림 한마당으로 모두 하나되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강기운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장이 부산지역 가스설비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대한 공로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상을 수상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인사발령 단행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은 조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우수보증기관 발전을 목표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하는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주요 인사발령으로는 설비조합의 태동과 함께 시작하여 도약기를 마련한 최영석 남부지점장의 퇴직대비 조합

근무와 운영규 광주·호남지점 차장의 정년퇴임을 맞으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이에 남부지점장으로는 윤정준 전 대전·충청지점장을, 대전·충청지점장으로는 김극 전 신사업개발부장을 임명하고, 일부 직원의 승진전보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통해 끊임없는 조합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제1회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개최



해외건설협회(회장 유준규)는 지난 11월 1일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김한길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추경직 건설교통부장관,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 심옥진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 등 건설관련기관장 및 건설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추진위원장인 주승용 국회의원은 「해외건설 진출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플랜트 건설산업이 이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고 제2의 중흥을 선포하기 위해 제1회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승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플랜트 건설산업은 지난 40년 동안 해외건설 역사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국가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전통기술과 첨단기술력을 결합시켜 고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면서 「플랜트 건설산업의 중요성과 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기업, 학계, 정부, 연구기관 등의 총체적 결집을 통해 플랜트 건설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흥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범진기공(주) 김영오 대표이사(우측)와 국제산공(주) 정병용 상무이사(좌측), 국제산공(주) 신윤하 대표이사(가운데)

해외건설협회 유준구 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고유가 지속에 따른 중동 건설특수와 아시아 건설시장 회복, 유망 신시장 개척 등의 노력으로 올해는 해외건설수주 100억불 초과 달성과 더불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업계는 과거 80년대 세계 제2위의 건설수출국 명성을 회복함은 물론 연간 300억불이 넘는 석유수입대금의 대부분을 해외건설 수출을 통해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치사에서 「지속적인 해외 건설 확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 건설산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혁신하고 초고층 빌딩과 플랜트 건설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투자 개발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이 폭넓게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해외건설플랜트인들은 한국건설업체가 1965년 11월 해외건설에 첫 진출한 이후 40주년이 되는 올해 2005년을 계기로 △한국 해외건설 플랜트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여 플랜트 건설을 통해서 한국의 해외건설을 선도하고, 한국 건설업계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며, 21세기 2만불 시대와 국가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을 정하고, 매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제정을 선포하였다.

또한 이날 한국 건설산업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대우건설 정태화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33명의 유공자가 훈포장 및 건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중에서는 범진기공(주) 김영오 대표이사가 건설교통부 장관 단체상을, 국제산공(주) 정병용 상무이사가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